

KLPGA

members

2015 VOL.34 12월호



SPECIAL

하나의 팀이 되어,
한국여자골프의
자존심을 내건 명승부



COVER STORY

시즌 세 번째 메이저 퀸,
안신애를 만나다

RISING STAR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슬기 인터뷰

TOUR REVIEW

2015시즌
KLPGA투어 총정리

LIFE INFO

겨울라운드,
추위를 이기는 법!



COLUMN

명예기자 칼럼

KLPGA투어 코스해설
배경은, 신나송, 박시현 프로



LEEDONGSOO Plus T.02-3218-4000 WWW.LEEDONGSOO.CO.KR WWW.LEEDONGSOOSHOP.COM

LEEDONGSOO SPORT

CLPGA
Official Supplier

정말 광고처럼 바로 스크르~ 효과 납니까?
네, 바로 효과 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정규 투어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 선수들 중 120여 명이 공식적으로 바록스 마사지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투어 프로들은 아마 훨씬 많겠죠... 바록스 마사지젤은 이제 필수입니다.

정말 광고처럼 얼굴이 하얘집니까?
네, 하얘집니다



골퍼용 미백
바록스-화이트골프크림

출시된지 이제 3개월 남짓이지만, 한, 미, 일 여자 투어 프로 선수들 중 40여 명이, 지금 바록스 화이트골프크림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프로골퍼들의 얼굴도 하얘지는 진짜 미백 효과를, 써보면 다들 아니까요

1600 - 4049
www.barox.co.kr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5년 12월호



024



032



036



038

Section 01. KLPGA & Tour

004 / member's service

멤버스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010 / SCHEDULE

투어스케줄
2015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스케줄

014 / TOUR PREVIEW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12월 KLPGA투어

016 / TOUR NEWS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020 / BEST PHOTO

베스트 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024 / TOUR REVIEW

투어리뷰
2015시즌 KLPGA투어 총정리

Section 02. People & Story

032 / COVER STORY

커버스토리
나에게 골프란 [최고의 행복]이다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안신애 인터뷰

036 / RISING STAR

라이징스타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드림투어 18차전 우승자 정슬기 인터뷰

038 / SPECIAL

스페셜
하나의 팀이 되어,
한국여자골프의 자존심을 내건 명승부

042 / SPONSOR

스폰서
군산컨트리클럽

Section 03. Life & Communication

044 / FIT TRAINING

핏 트레이닝
맨손으로도 잘해요 II

046 / MONEY TREND

머니트렌드
해외투자 상품의 과세와 절세상품

048 / member's TALK

멤버스톡
나의 힘 나의 빛, 새로운 나를 찾다

050 / COLUMN

명예기자 칼럼
KLPGA투어 코스해설
배경은, 신나송, 박시현 프로

054 / LIFE INFO

생활꿀팁정보통
겨울라운드, 추위를 이기는 법!

055 /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오
사랑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056 / PAGODA STAR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좋아하는 음악

056 / QUIZ & QUIZ

틀린그림찾기

SCHEDULE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2015/12

DECEMBER 201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30	1	2	3	4	5	6
				←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미요시컨트리클럽) →		
7	8	9	10	11	12	13
2015 KLPGA 대상 시상식				←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Mission Hills Golf Club Haikou)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무주안성 CC

혜택

정회원 : 그린피 50%(주중, 주말)
정회원간 2인 플레이 가능(주중)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주중, 주말)



기간 | 2014년 2월 ~ 연락처 | 063-320-3215
담당자 | 이승민 팀장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홈페이지 | www.mujuanseongcc.co.kr

무주안성 컨트리클럽은 전략적인 코스로 구성된 18홀 골프장입니다. 퍼팅그린에는 양잔디를 식재로 세계 정상급 그린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코스 및 전략적이며 도전적인 코스, 지형을 최적화한 코스 등 다양한 코스설계로 플레이어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청정지대인 무주의 맑은 공기와 함께 매를 덕유산의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



골프

골든베이

기간 | 2014년 11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할인(팀 당 36만 원 / 4인 1팀 기준), 자세한 사항 담당자에게 문의
연락처 | 041-671-8000, 8100 (예약실)
홈페이지 | www.goldenbay.kr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가 적용, 국내전세버스 정상요금의 10~15% 할인
담당자 | 김종석 과장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 (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삼성 / 목동지점 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동,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 1일 1회(60분) 이용 / 등록 지점에 한함
담당자 | 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그린피 69,000원 (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 : 정회원 23,000원 /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 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롯데 스카이하일

기간 | 2015년 5월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 (강해CC 이용 시 개별소비세 별도)
연락처 | 제주(064-731-2020~2024), 김해(055-340-9001~4), 성주(054-930-9001~3)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member's service>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달 분야별로 세 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 /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
 연락처 | 063-320-3215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연락처 | 061-804-1000 (대표전화)

서원힐스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주중 : 3만 원 / 주말 : 2만 원 할인)
 골프연습장 입장 골프아카데미 혜택
 : 국가대표, 상비군선수 연습 라운드, 쇼트게임, 타석 무료 제공
 우수선수 연습비용(라운드, 타석) 할인 혜택 제공
 연락처 | 031-941-0025 (예약실) 홈페이지 | www.seowongolf.co.kr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말 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80 (예약실)

스카이72 GC

기간 | 2005년 ~
 혜택 | 1) 그린피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 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 레인지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스카이72 GC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1)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2)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트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타석, 파3, 벙커 / 쇼트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o.kr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인터불고경산

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9월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 당 50% 1명 할인, 팀 당 2명까지 50% 할인대우
 연락처 | 1544-4222 (예약실) 홈페이지 | www.interburgoccc.com

중원골프클럽

기간 | 2015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4인 내장 시 회원 본인 그린피 50% 할인
 연락처 | 043-849-7290~7292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동로 392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그린피,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텔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시 객실료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 시 연습장 할인(비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홍성 영업총괄팀장 연락처 | 064-793-6600 / 010-2697-0001

타니 CC

기간 | 2012년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 주중 6만 원
 할인 혜택은 주중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태광 CC

기간 | 2013년 9월 9일 ~
 혜택 | 퍼블릭(전 시간대, 휴일 포함) : 프로 1명 면제
 회원제(전 시간대, 휴일 제외) : 프로 1명 회원 대우
 연락처 | 070-8189-6100
 홈페이지 | www.taekwangcc.co.kr
 일반인 3명 동반 내장 시 할인혜택은 1팀 1명에 한함, 접수 시 회원증 제시

파가니카 CC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회원, 회원 추천인, 동반자 그린피 할인(4인 1팀 기준 / 회원은 팀 당 1인 기준)
 담당자 | 김영호 영업팀장 연락처 | 1566-6556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 혜택** | 1) 프로 1명 + 비회원 3명 : 프로는 주중 3만 원/ 주말 5만 원
 2) 동반자는 당일팀 : 정상가 / 1박 2일 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 4명 : 주중 50% 할인
 3)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 원 할인(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포천힐스 CC

기간 | 2015년 3월 1일 ~ 12월 31일

- 혜택** | 주중 1부(~08:30 이전) : 6만 원, 일요일 2부(12:30~이후) : 8만 원
 연락처 | 031-538-7000(예약실)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연락처 | 051-726-0752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의료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위드치과

혜택

회원 및 가족 | 비보험 치료 10% ~ 20% 할인

임플란트 | 국산 네오 75만 원, 오스템칼슘 85만 원 / 수입 집머 120만 원, 아스트라 150만 원
 치아교정 | 메탈 180만 원, 세라믹 210만 원, 클리피씨 240만 원, 투명(악당) 100만 원 ~



기간 | 2014년 2월 ~ 연락처 | 010-7795-0515 담당자 | 정흥주 부장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센트로빌딩 4층

(분당 서현역 5번 출구 앞 ZARA매장 4층)

홈페이지 | www.seoulwith.co.kr

기타 | 당일치료완성 세렉시스템 도입, 365일 진료(일, 공휴일 진료),
 월·화·목·금 야간진료, 맞춤형 보철 자체기공실 완비, 진료과별 5일 원장 합진

서울위드치과는 서울대 출신 원장님들을 포함하여 5명의 진료과별 원장님들의 협진을 통해 정확하고 세심하게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365일 진료와 주4회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및 가족분들의 든든한 치과주치의로서 치이고민 상담부터 치료까지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연락처 | 010-7796-0515 (사전예약제로 운영)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층(서현동, 센트로빌딩)

세브란스체코업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 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안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허망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사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생활/문화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 66,000원 / 주말 88,000원 /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김윤환 지배인 연락처 | 063-79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까라디

혜택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50% 할인
(디자이너 지정은 불가합니다)



기간 | 2012년 9월 ~

대표 문의 전화 | 02-545-4000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7 세상빌딩

홈페이지 | www.caradi.co.kr

기타 | 웨딩진행시 별도 상담진행

고객님을 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간!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운까지 전달해주는 공간! 트렌드에 앞서가기보다는 평생 보아도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메이크업&헤어스타일, 고객님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링을 추구합니다. 도산공원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전문가의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토탈 뷰티 살롱 '까라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연락처 | 02-545-4000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허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린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1) 골프 컨디셔닝 30% 할인 2) 재활, 도수통증 관리 2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A동 263호
 담당자 | 박혜지 대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rinpilates

(주)모리엔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 분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이준형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기입

베니키아 호텔 문막

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혜택 | 스탠다드(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주말 60,000원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 기준 투숙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 추가(7세 이상)
 담당자 | 김주선 총지배인 연락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개관시간 | 월~토 : 10시 30분~19시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어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와룡산업 외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의료용(2인용) /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2인용 /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소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배냇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절차 | 분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기입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inhill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빌라드 애월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객실료 50% 할인(풀빌라 제외)
 연락처 | 064-720-9013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16-7(신연리 2768-7)

제주 항공우주 호텔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기타 |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5,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IF몰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5년 4월 9일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IF몰(www.ifmall.co.kr)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정상상품 정상소비자가 대비 40% 할인(연간 한도 120만 원 / 실구매가 기준)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eMA

기간 | 2014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2년간)
혜택 | 학비감면, 입학 지원
 1) 학비 감면 혜택 : 등록금의 20% 감면
 한학기 등록금 : 3,442,000원(20% 감면 시 : 2,753,600원)
 ※ 입학금(입학 시 1회만 납부) : 467,000원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모집장원 : 모집인원 증원 시 상호협의 하에 진행
- 3) 강사임용 : 협회회원 지원 시 특전 부여(가산점 부여 할 수 있음)

담당자 | 정경일 교수 (3408-3817, 010-9357-0680)
 연락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3408-3740, 3703, 3704)
 홈페이지 | www.emba.ac.kr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 1) 모집학과 : 골프·리조트경영학과
- 2) 모집인원 : 총 00명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미 실시) - 평가기준 : 적성, 경력, 성적, 연구계획서 등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 (월 1과목 수강 가능))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회원증 차감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 (월 2과목 수강 가능))

- KLPGA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7일 ~ 익월 10일

담당자 |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율 70% 미달일 경우 :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3월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모집인원 : 70명 (영어 : 50명, 일본어 : 10명, 중국어 : 1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월 교육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 4) 지원기간 :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노희연 사원

연락처 | 02-560-4427, FAX)02-539-6003 / nhy1021@klpga.org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률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자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7월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 1) 교육대상자 : KLPGA 회원(정/준/퇴원)
- 2) 교육형태 : 매월 1회(2015년 8월 ~ 2016년 7월)
- 3) 교육프로그램
 가. 리더스모닝포럼(서울) 나. 인사이트포럼(전국 5개 도시/대전, 부산, 대구, 광주, 광주)
- 4) 모집인원(선착순모집)
 가. 리더스모닝포럼 : 20명 나. 인사이트포럼 : 5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5) 교육기간 : 한국능률협회
- 6) 교육지원
 매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200,000원)
- 7) 신청방법

가. 한국어자프로그로프협회로 신청

나.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다. E-MAIL : nhy1021@klpga.org / FAX : 02-539-6003

■ 기타혜택

- 가.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나. 기타 세미나 초청(명품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다. E2B 서비스(할인)

- 경비 절감(5~60%) : DHL 코리아, 한국렌탈, KT금호렌터카, 한수지 플라워
- 직원 복지(15~50%) : 슈퍼리어, 그랜드힐튼호텔, 전남관광, 드림성모안과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김유중 대리(02-560-4422), 노희연 사원(02-560-4427)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 KLPGA뉴스 기사란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금융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레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기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레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레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 6) 발레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 5천 원)
-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틀이랜드 등
-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 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레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시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레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지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516-7745

2015 TOUR SCHEDULE

투어, 꿈을 향한 무한도전!



대상포인트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종료시점

순위	이름	포인트
1	전인지	435
2	이정민	408
3	김해림	354
4	이민영2	340
5	박성현	331

상금순위

순위	이름	상금
1	전인지	913,760,833
2	박성현	736,690,082
3	조윤지	654,062,500
4	이정민	642,437,917
5	고진영	533,505,416

New Heroine NH투자증권 신인상포인트

순위	이름	포인트
1	박지영	1784
2	김예진	1581
3	박결	1455
4	박채윤	1400
5	지한솔	1329

평균타수

순위	이름	평균타수
1	전인지	70.56
2	이정민	71.09
3	조윤지	71.13
4	배선우	71.30
5	이민영2	71.32

평균퍼팅

순위	이름	평균퍼팅수
1	이은빈	29.86
2	김혜윤	29.96
3	조정민	29.99
4	이승현	30.04
5	임지나	30.05

톱텐 피니쉬율

순위	이름	톱텐 피니쉬율
1	전인지	55.00
2	이민영2	50.00
3	이정민	47.83
4	김해림	42.86
5	김민선5	40.74

04 April

05 May

06 June

9 ~12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4월 9일 ~ 12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김보경(요진건설)

17 ~19
삼천리 Together Open 2015
일정: 4월 17일 ~ 19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24 ~26
백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
일정: 4월 24일 ~ 26일
장소: 가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벵스)

1 ~3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1일 ~ 3일
장소: 무주안성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민선5(CJ오쇼핑)

8 ~10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8일 ~ 10일
장소: 인터불고경산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벵스)

15 ~17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5월 15일 ~ 17일
장소: 수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21 ~24
2015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5월 21일 ~ 24일
장소: 라데나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29 ~31
티 채리티 오픈
일정: 5월 29일 ~ 31일
장소: 휘닉스스프링스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5 ~7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6월 5일 ~ 7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이정민(비씨카드)

12 ~14
제9회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
일정: 6월 12일 ~ 14일
장소: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18 ~21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6월 18일 ~ 21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박성현(벵스)

25 ~28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
일정: 6월 25일 ~ 28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장하나(비씨카드)



07
July

3 ~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7월 3일 ~ 5일
장소: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효주(롯데)

10 ~12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일정: 7월 10일 ~ 12일
장소: 버치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범스)

16 ~19

**BMW Ladies Championship
2015**

일정: 7월 16일 ~ 19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조윤지(하이원리조트)

23 ~26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7월 23일 ~ 26일
장소: 블루헤런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08
August

7 ~9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8월 7일 ~ 8월 9일
장소: 오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정은(교촌F&B)



20 ~23

BOGNER-MBN 여자오픈

일정: 8월 20일 ~ 23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하민송(롯데)

27 ~30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8월 27일 ~ 30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유소연(하나금융그룹)

09
September

3 ~6

한화금융 클래식 2015

일정: 9월 3일 ~ 6일
장소: 골든베이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Haru Nomura

10 ~13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9월 10일 ~ 13일
장소: 페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안신애(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18 ~20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일정: 9월 18일 ~ 20일
장소: 엘리시안 강촌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범스)

24 ~26

YTN·볼빅 여자오픈

일정: 9월 24일 ~ 26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장하나(비씨카드)

10
October

2 ~4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일정: 10월 2일 ~ 4일
장소: 솔모로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범스)

15 ~18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10월 15일 ~ 18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200만 불
우승자: Lexi Thompson(미국)

22 ~25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10월 22일 ~ 25일
장소: 남촌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30 ~11/1

**서울경제·문명퀀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10월 30일 ~ 11월 1일
장소: 드비치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혜윤(비씨카드)

11
November

6 ~8

**ADT CAPS Championship
2015**

일정: 11월 6일 ~ 8일
장소: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오지현(KB금융그룹)

13 ~15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일정: 11월 13일 ~ 15일
장소: 레이크사이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최혜정2



12
December

4 ~6

더퀀즈 presented by 코아

일정: 12월 4일 ~ 6일
장소: 미요시컨트리클럽 일본
총상금: 1억 엔

11 ~13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12월 11일 ~ 13일
장소: 미션힐스 중국
총상금: 55만 불

종료대회



1		일정: 8월 31일 ~ 9/1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박지연(한국체대)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5차전	
2			일정: 10월 1일 ~ 2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임은빈(합평골프교)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3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8월 3일 ~ 8월 4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박소혜(은광여고)		일정: 11월 2일 ~ 3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박지연(한국체대)
4				
5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3차전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6차전
6			일정: 10월 5일 ~ 7일 장소: 영광 총상금: 8천만 원 우승자: 김복자 (1879프로골프단)	일정: 10월 5일 ~ 6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김나래B
7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7차전
8				일정: 10월 7일 ~ 8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아람(용인대)
9				
10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11		일정: 8월 10일 ~ 11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 원 우승자: 홍희선		
12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1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13	일정: 8월 12일 ~ 13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권보미	일정: 8월 12일 ~ 13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이정은(한국체대)		
14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1차전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	
15		일정: 9월 14일 ~ 16일 장소: 영광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한소영(MFS)	일정: 10월 14일 ~ 15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정슬기	
16				
17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2차전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3차전		
18	일정: 8월 17일 ~ 18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아람(용인대)	일정: 9월 17일 ~ 18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유효주(한서고)		
19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3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20	일정: 8월 19일 ~ 2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소희(중부대)	일정: 8월 19일 ~ 20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최주희(대구대)		
21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4차전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9차전	
22		일정: 9월 21일 ~ 22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공나연(제주남영고)	일정: 10월 21일 ~ 22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권보미	
23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		
24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25	일정: 8월 24일 ~ 25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 원 우승자: 김형민	일정: 9월 23일 ~ 24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정수(21CJ오쇼핑)		
26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27	일정: 8월 26일 ~ 27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안나연(건국대)	일정: 8월 26일 ~ 27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박다솜 (명지대)		
28				드림투어
29				점프투어
30				시니어투어
31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5차전			종료대회

12

DECEMBER KLPGA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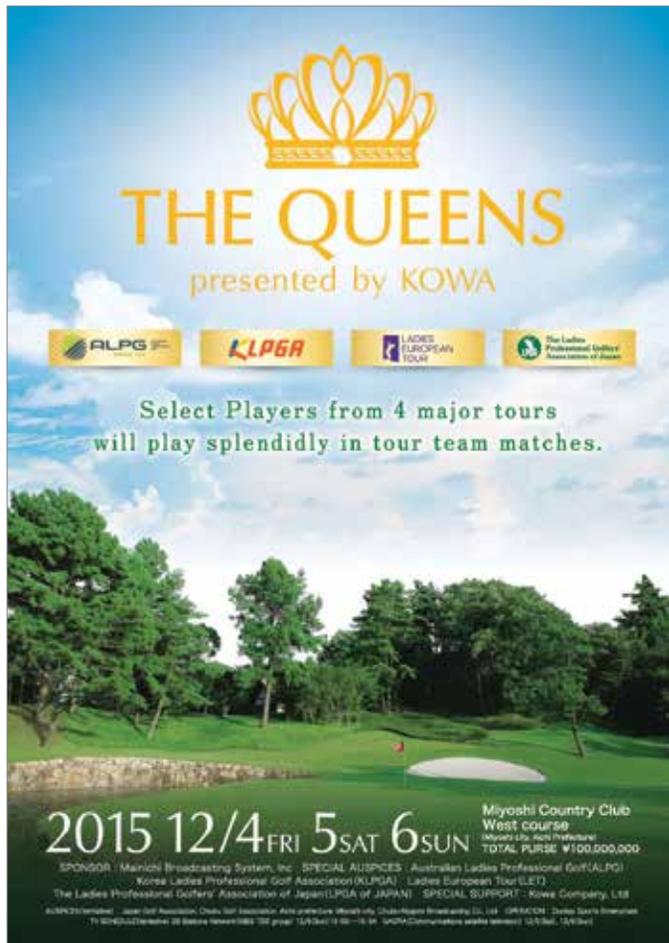
미리 둘러보는 12월 KLPGA투어

올시즌이 29개의 대회가 모두 마무리 됐다.
12월에는 일본에서 투어대항전과
중국에서 2016시즌 첫 대회가 개최된다.
울 겨울에도 추위를 녹여줄
KLPGA 선수들의 뜨거운 플레이를 기대한다.

글 _ 김소현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본에 위치한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4개 투어대항전 '더퀸즈 코와 presented by 코와'가 열린다. 한일국가대항전에서 발전된 형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KLPGA와 JLPGA(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LET(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LPG(호주여자프로골프협회) 등 4개의 협회가 참가한다.

투어별로 9명의 선수를 선발해 총 36명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KLPGA는 상금순위에 따라 전인지, 박성현, 조윤지, 이정민, 고진영, 배선우, 김민선과 추천선수 김세영, 이보미를 선발해 발표했다. 나머지 협회도 출전선수를 발표한 가운데, 세계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로라 데이비스를 비롯해 USLPG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팀 주장으로 이보미, 일본팀 주장으로 우에다 모모코, 호주팀 주장으로 레이첼 헤더링턴, 유럽팀 주장으로는 로라 데이비스가 선정돼 각각의 자존심 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한일국가대항전에서 역대 7승2무3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팀 역시 이번 대회에도 막강한 '드림팀'이 구성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금총액은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이며 경기 방식은 1라운드는 포볼 매치플레이, 2라운드는 포섬 매치플레이, 최종라운드는 싱글 매치플레이로 진행된다.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중국 심천에 위치한 미션힐스 골프클럽에서 시즌 개막전인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이 열린다. 2006년에 시작돼 10회째를 맞은 본 대회는 한중 골프발전과 양국의 스포츠 교류를 위해 개최됐다. 매 대회에서 KLPGA와 CLPGA 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승부를 겨뤘다. 지난 대회에서는 2014 시즌 4관왕을 차지한 김효주가 5홀 연속 버디쇼를 펼치며 14언더파를 기록해 올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2012년 본 대회에서 KL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 기록을 세운 대회이기도 해 인연이 남다르다.

이번 대회에도 김효주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해 타이틀 방어에 나서며, 본 대회에서 2번 챔피언 자리에 오른 김혜윤의 멋진 활약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모든 참가선수들이 2016시즌 첫 대회만큼 새로운 각오로 우승컵 경쟁을 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 총상금액 역시 지난 대회와 동일하게 기존의 4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증액된 55만 달러의 규모로 펼쳐진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전인지 우승, 시즌 한·미·일 메이저 5승, 상금왕 굳히기



한국여자프로골프 K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메이저의 여왕' 전인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인지는 경기도 광주 남촌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1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제6회 하이진트로 챔피언십' 이후 국내 대회에서는 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왕과 다승왕 경쟁에서 턱밑까지 따라붙은 박성현의 추격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인지는 올시즌 KPGA 무대에서 5승을 거두며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을 보태 시즌 상금을 9억 1,575만 원으로 늘렸고, 박성현과 격차는 2억 7천여만 원 차이로 벌였습니다. 전인지는 또 올 시즌 한국에서 메이저대회 2승, 일본에서 2승, 미국에서 1승 등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만 5개를 쓸어담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대회 초청 선수로 출전한 세계 1위 박인비는 2타를 줄이며 합계 9언더파로 김해림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준우승이라는 진기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박인비는 "2라운드에서 오버파를 치지 않았다면 우승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 대회 우승은 내년으로 미루고 USLPGA투어에서 시즌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해림은 두 대회 연속 최종라운드 역전패에 울었습니다. 직전 대회였던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에서 최종라운드를 1타차 선두로 시작했지만 박성현에 역전 우승을 내줬던 김해림은, 오늘도 단독 선두로 출발했지만 2타를 잃는 부진 속에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김해림에 3타 뒤진 채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전인지는 전반 9개 홀에서 1타를 줄여 전반에만 두 타를 잃은 김해림과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림이 10번홀 버디로 1타차로 달아나자, 전인지는 파3 12번홀에서 티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이며 버디를 추가해 다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승컵의 향방은 마지막 3개 홀에서 결정됐습니다. 전인지는 파4 16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2.5미터에 붙이며 1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나섰고, 17번홀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그린을 가리는 상황에서 8번 아이언으로 나무를 넘겨 그린을 직접 공략해 파를 지켰습니다. 18번홀에서는 아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카트 도로 주변에 모여 있던 갤러리를 향해 날아갔는데,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하민승 선수의 몸통을 맞고 더는 오른쪽으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멈춘 공을 벌타 없이 드롭한 전인지는 3타 만에 그린에 올라와 퍼트 두 번으로 1타를 잃었지만, 김해림도 보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1타차 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인지

는 "18번홀 티샷 실수 때 속으로 아차했다"면서 "16번홀 버디로 1타차 선두로 나섰을 때 '우승 기회가 오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지는 또 "2주 연속 우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다음 대회에서 꼭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제공 - SBS 김형열 기자)

[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스텝 골퍼' 김혜윤, 3년 만에 정상 복귀



KPGA투어 '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김혜윤이 역전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혜윤은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 경기에서 무려 8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10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2시즌 'HYUNDAI China Ladies Open'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에 오른 김혜윤은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아 상금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했습니다. 선두 윤재영에 5타 뒤진 공동 8위로 3라운드를 시작한 김혜윤은 1, 2번 홀 연속 버디로 3라운드를 시작한 뒤 버디만 8개를 잡아 조윤지를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랭킹 1위 전인지는 10번홀 티샷을 마치고 어깨 통증으로 기권했지만 상금왕을 확정했습니다. 전인지와 상금왕 경쟁을 벌인 박성현은 2타를 줄여 공동 9위를 차지했지만 전인지와 상금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이성훈 기자)

[ADT CAPS Championship 2015] 오지현, 생애 첫 우승!

KPGA투어 'ADT CAPS Championship 2015'에서 오지현이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오지현은 부산 기장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몰아쳐 7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최종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한 오지현은 8언더파를 적어낸 공동 2위 하민승과 김보경을 6타차로 멀찌감치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3년 시드전을 통해 정규투어에



데뷔한 오지현은 지난해에도 시드전을 거쳐 올 시즌 투어에서 뛰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는 7차례 톱 10에 진입하며 상금순위 29위에 올라 내년 시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금랭킹 60위 이내 선수들이 출전한 왕중왕전인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단독 선두였던 고진영은 오늘 2타를 잃으며 6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상금랭킹 2위 박성현은 3언더파 공동 12위를 차지했고, 대상 포인트 2위 이정민은 5오버파 공동 53위로 부진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최화진 기자)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늦깎이 루키 최혜정, 최종전서 첫 우승



뒤늦게 신인 선수에 이름을 올린 최혜정이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 KPGA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혜정은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린 KPGA투어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2015'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잡아 4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7언더파를 기록하며 박성현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성현도 마지막 날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지만 최혜정의 뒷심에 밀려 시즌 4승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2009년 KPGA투어 정회원인 됐지만 이후 5년이 넘도록 2부 투어에서 뛰다가 올해 정규 투어에 입문한 최혜정은 첫 우승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초반에는 흔들렸습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해 10번홀까지 보기 2개와 버디 1개로 1타를 잃고 전반 9홀에서 3타를 줄인 박성현에게 쫓겼습니다. 최혜정은 이때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박성현이 11번홀 보기를 범한 뒤 12번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추격했

지만, 최혜정은 11번홀부터 3개 홀 연속 버디를 낚으며 1타차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 조에서 경기를 한 박성현이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경기를 끝내자, 최혜정은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승부에 쐬기를 박았습니다. 2타차 선두로 파4 18번홀에 들어선 최혜정은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이고 다시 한 타를 줄여 3타차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사제공 - SBS 김형열 기자)

[K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9차전] 곽보미, 시즌 2승 달성!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컨트리클럽(파72/6,434야드) 서A, 서B 코스에서 열린 'K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9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곽보미(23)가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선두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곽보미는 버디 5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이며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65-67)로 우승을 차지했다.

곽보미는 "정말 기분이 좋다. 첫 우승은 얼떨결에 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정규투어 진출을 위해 우승이 간절했다. 파5홀에서 버디를 많이 하겠다는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며 기뻐했다. 2010년에 K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곽보미는 2012년 정규투어에서 활동했고 올시즌 'K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1차전'에서 첫 우승을 신고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상금순위 3위로 뛰어오르며 6위에게까지 주어지는 차기연도 정규투어 시드권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곽보미는 "첫 우승 후 정규투어 진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 안 되면 정규투어 시드순위를 가지고 편하게 마음 먹었더니 우승까지 이어졌다. 올시즌 생각보다 성적이 좋아서 스스로 놀랍고 마지막 대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시즌 3승을 차지한 박지연(20,한국체대)이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67-67)로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상금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박지연은 1위 김이림(20,용인대)과의 격차를 약 5백6십만 원 차로 좁혀 마지막까지 상금왕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박지연, 우승과 함께 상금왕 등극!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30야드) 남A, 남B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총상금 7천만원, 우승상금 1천4백만원)에서 박지연(20,한국체대)이 시즌 네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상금왕 자리에 올랐다.

1라운드에서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박지연은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8-68)로 한 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연은 "지난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올해 시즌 4승을 하게 되어 기쁘고 즐거워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 정도다"며 기뻐했다. 이어 박지연은 "오늘 다소 기복 있는 하루였다. 18번홀에서 5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었는데, 같은 조에서 경기한 선두 선수가 버디 기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우승 순간을 회상했다. 1위와 약 5백6십만 원 차로 상금 순위 2위였던 박지연은 이번 우승으로 1천4백만 원을 획득하며 상금왕 자리까지 올랐다. 박지연은 "정말 기쁘다. 하지만 상금왕이라는 것만으로 주변의 기대가 클 것 같아 걱정도 된다. 열심히 해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뒤를 이어 18차전 우승자 정슬기(20)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68-69)로 단독 2위를 차지했고, 김다은(19)과 황예나(22,볼빅)가 6언더파 138타로 공동 3위 자리에 올랐다. 상금 순위 1위였던 김아림(20,웅인대)은 이번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머무르며 약 7백4십만 원 차로 아쉽게 상금왕을 놓쳤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총 20개 대회로 치러진 '2015 KLPGA 드림투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상금왕 박지연을 비롯해 김아림과 정슬기, 곽보미(23), 최민경(22,세종대), 김정수(20,CJ오쇼핑) 등 6명의 선수가 내년도 정규투어 시드권을 획득하며 '2016시즌 KLPGA투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워드버디' 통해 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워드버디' 기금과 경상남도 산청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건축사회의 후원을 통해 설립되는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이 2일(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열렸다.

KLPGA는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국내 개막전인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부터 KLPGA를 대표하는 선수, SBS와 함께 의미 있는 자선 활동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9명의 KLPGA 선수들은 매 대회, 각 라운드에서 기록한 버디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 KLPGA와 SBS는 각 라운드 두 번째 파3홀에서 버디 1개당 10만 원의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캠페인은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KLPGA 선수들과 SBS가 마련한 드림워드버디 기금과 기타 후원 기업들의 기금이 더해진 적립금은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KLPGA 강준자 수석부회장은 "시즌 내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했다는 점이 매우 기쁘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 바라며, KLPGA는 앞으로도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LPGA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골프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계획이다.

* 드림워드 버디 참여 프로 선수

고진영, 김민선5, 김보경, 김보배2, 김지수, 김현수, 박결, 박유빈, 박주영4, 박지영, 백소진, 변현민, 안송이, 양수진, 양제윤, 염혜인, 윤채영, 이기쁨, 이승현, 이시은, 이주미, 장수화, 정희원, 차민정, 최가람, 최혜정, 홍란, 홍유연, 홍진주

[KLPGA TO YOU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KLPGA, 대장초등학교에서 골프연습장 준공식 가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11월 6일(금),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장초등학교에서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가졌다. KLPGA는 골프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환경적



인 요인으로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난해부터 'KLPGA TO YOU' KLPGA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다섯 개의 타석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대장초등학교에 지원했다. 지난 10월 29일(목) 완공된 골프연습장 준공식에는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을 비롯, 대장초등학교 김남호 교장 및 학생, 학부모, 동문회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장초등학교 김남호 교장은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몸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골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 완공된 골프연습장에서 훌륭한 골프 선수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골프 연습공, 클럽세트 등 다양한 골프 용품들이 추가적으로 전달돼 그 의미를 더했다. KLPGA는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대회,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전국여자아마골프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KLPGA 골프키즈단을 진행하며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KLPGA 2015 전국여자아마골프 선수권 대회] 김세영 중고대학부 우승, 윤민아 초등부 우승!



지난 6일(금),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 익산, 김제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전국여자아마골프선수권대회' 최종일, 김세영(18,한서고)이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67-67-68)로 중고대학부 우승을, 윤민아(12,서울반포초)가 15언더

파 201타(68-65-68)로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골퍼 선수의 저변 확대와 우수 아마추어 골퍼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올해 처음 개최한 본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대학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254명(초등부 20명, 중고대학부 234명)의 선수 중 예선을 통과한 124명(초등부 16명, 중고대학부 108명)의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5일 동안 진행된 선수권대회 중고대학부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샷과 퍼트 모두 잘됐다. 올해 아쉬운 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세영은 "내년에 점프투어를 통해 정회원 이 된 후, 정규투어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까지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뒤, "골프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인성이 바른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KLPGA는 우수 아마추어 육성 및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KLPGA-삼천리 꿈나무 대회'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골프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골프 키즈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등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KLPGA, 안선주에게 투어 영구시드권 부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JPGA투어에서 20승을 달성한 안선주(28,모스푸드서비스)에게 KLPGA투어 영구시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KLPGA는 'KLPGA 투어 상금순위로 인정한 대회 중 통산 20승 이상 선수' 또는 'USLPGA, JPGA, LET투어 상금순위로 인정한 대회 중 3개 투어 통산 20승 이상 선수'에게 KLPGA투어 영구시드권을 부여한다. 지난 2005년 8월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안선주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KLPGA 투어에서 뛰며 통산 7승을 올렸다. 2010년 JPGA투어로 무대를 옮긴 안선주는 데뷔 첫해부터 4승을 거두며 두각을 드러냈고, 14개 대회 만에 통산 20승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10년, 2011년, 2014년에 상금왕을 차지하며 골프 한류 열풍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안선주는 "1승을 더 하면 KLPGA투어 영구시드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제 우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대회에서 많은 것을 이루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선주는 "주 무대는 일본이긴 하지만 상황이 된다면 한국 대회에도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안선주는 올 시즌 JPGA투어에서 2승을 기록중이며, KLPGA투어 대회에는 지난해 '한화금융 클래식 2014'에 출전한 바 있다.

BEST PHOTO

베스트 포토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5 KLPGA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이정은5, 9번홀 세컨샷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이정은5



닉네임 '플라잉 덤보' 포즈 취하는 전인지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전인지

13번홀 신중하게
그린을 살펴보고 있는 김해림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김해림



17번홀 그린에 물려든 갤러리
KB금융 스타챔피언십





3번홀 페어웨이로 이동하는 배선우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배선우



우승 축하 꽃잎 세례받는 김혜윤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김혜윤



윤채영, 4번홀 파세이브 후
밝은 표정으로 축하받고 있다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윤채영



조윤지, 3번홀 버디 성공 후 캐디와 기뻐하고 있다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조윤지



18번홀로 이동하는 전인지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전인지



김혜윤의 15번홀 티샷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김혜윤

ADT CAPS Championship 2015



캐디와 함께 우승 트로피 들고
포즈 취하고 있는 오지현
ADT CAPS Championship 2015
오지현



박결, 2번홀 파세이브 후 캐디와 기뻐하고 있다
ADT CAPS Championship 2015
박결



18번홀에서 티샷 날리는 오지현
ADT CAPS Championship 2015
오지현



장은수, 1번홀 버디 성공 후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웃고 있다
ADT CAPS Championship 2015
장은수



변현민의 4번홀 티샷
ADT CAPS Championship 2015
변현민



우승 트로피 들고 포즈 취하는 최혜정2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최혜정2

포토콜 행사 중 위너스 셀피 찍는 선수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우승 축하 문세계받는 최혜정2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최혜정2



18번홀에서 버디 퍼트 동친 후
아쉬워하는 박성현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박성현



김해림의 14번홀 티샷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김해림

한 눈에 알아보는 2015 시즌 총 결산

실 틈 없이 달려온 2015시즌이 마무리됐다. 올시즌은 전인지의 두드러진 활약을 비롯해 강자들이 다승을 거두며 입지를 굳건히 하는 시즌이었다. 특히 떠오르는 새로운 신흥 강자들의 기세가 대단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2015시즌 KLPGA투어를 되돌아보며 화제의 순간들을 정리했다.

글 _ 김소현

KLPGA TOUR REVIEW

우승 축하
물세례 받는
전인지



2015시즌 상금왕, '메이저의 여왕' 전인지

올해는 '전인지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즌 세 번째 대회인 '삼천리 Together Open 2015'의 우승을 시작으로 '2015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등 이번 시즌에만 5승을 거둬 개인통산 10승을 달성했다. 특히 전인지는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한·미·일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반기에도 KLPGA투어와 JLPGA투어의 메이저 대회에서 각각 승수를 더하며 올시즌 5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챙겼다. 전인지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상금왕을 확정지으며 2015시즌 최고 스타플레이어임을 입증했다. 시즌이 마무리되고 전인지는 대상, 다승왕, 평균타수상까지 독차지해 올시즌 4관왕에 올랐다.



동료들로부터
우승 축하 꽃잎 세례 받는
김보경

오랜만의 우승으로 견재함을 과시한 투어 베테랑

올시즌은 투어 베테랑들의 반가운 우승이 많았다. 가장 먼저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보경이다. 투어 11년 차인 김보경은 약 2년 만의 우승을 거둬 변함없는 강자임을 증명했다. 조윤지는 올시즌 신설 대회인 'BMW Ladies Championship 2015'에서 정상에 오르며,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조윤지는 버디만 9개 몰아치는 버디쇼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이정은5가 역전승을 거두며 4년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아 감격을 누렸다.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에서는 안신애가 4차 연장전 끝에 5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서울경제·문영린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에서는 스티프골퍼 김혜윤이 짜릿한 역전승으로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세 명의 선수는 투어 경험에서 우러난 침착하고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줘 최종라운드에서 모두 역전승을 거뒀다.

정규투어 데뷔 후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새로운 강자들

투어 데뷔 후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새로운 강자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 중 박성현의 활약이 눈에 띈다.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시즌 첫 메이저 권의 자리를 차지한 박성현은 하반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상금순위 1위의 전인지를 위협했다. 2013시즌 드림투어 상금왕으로 정규투어에 입성한 후 올해로 2년차인 박성현은 자신만의 장타기술을 선보이며 새로운 신홍 강자로 떠올랐다.

'BOGNER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하민송 역시 2013시즌 점프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정규투어에 데뷔했다. 올해로 투어 2년 차인 하민송은 어린 나이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플레이로 우승을 거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DT CAPS Championship 2015'에서 우승한 오지현 또한 올해로 투어 2년 차다. 차세대 골프스타로 주목을 받았던 오지현은 정규투어 데뷔 첫 해에 혹독한 투어 적응기를 보냈다. 이번 우승으로 오지현은 골프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시즌 최종전이었던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에서는 최혜정이 박성현의 무서운 추격에도 흔들림 없이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흔들림 없는 스타플레이어, 입지 굳히기!

꾸준히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배놓을 수 없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편견을 깨고 가장 먼저 3승을 달성한 이정민은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우승을 시작으로 '티 채널티오픈',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2주 연속 연달아 정상에 오르며 시즌 초반 판도를 흔들었다. 고진영 역시 시즌 초반에 3승을 거두며 이정민과 다승 경쟁에 불을 붙였다. 고진영은 '투어 2년 차 슬럼프' 없이 더욱 늘어난 드라이버샷 거리와 노련미를 더한 침착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기세를 올렸다. 투어 2년 차 김민선5 역시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며 입지를 다졌다.

US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의 우승도 반가웠다. 2013시즌 상금왕 장하나는 국내대회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와 'YTN·볼빅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거둬 개인통산 8승을 달성했다. 2014시즌 상금왕 김효주는 시즌 첫 대회인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을 거두고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는 유소연이 3년 만에 국내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6년 만에 같은 대회의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



KLPGA 골프 키즈단으로부터
우승 축하 꽃잎 세례 받는
안신애



우승 확정 후 갤러리에게
인사하는 박성현



우승 축하
물세례 받는
김효주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2015 시즌 개막전 김효주 우승**

중국 심천에 위치한 미션힐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5시즌 개막전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공동선두로 최종라운드에서 나선 김효주는 전반에서 5홀 연속 버디쇼를 펼치는 등 무서운 기세로 펼쳐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시즌 첫 우승컵을 차지했다.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1년 10개월만에 김보경 통산 4승 달성**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김보경이 최종합계 9언더파 249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김보경은 낯은 날씨 속에서도 침착한 플레이를 이어나가 1년 10개월 만에 우승, 통산 4승을 기록하게 됐다.



**삼천리 Together Open 2015,
전인지 개인통산 5승 달성**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삼천리 Together Open 2015'에서 전인지가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최종라운드에서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2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친 전인지가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이로써 전인지는 개인통산 5승을 달성했다.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 고진영

경남 김해에 위치한 가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에서 고진영이 시즌 첫 승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이승현과의 팽팽한 접전 끝에 18번홀에서 고진영은 버티 퍼트를 성공하며 승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제5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54홀 최스타 타이 우승을 거둔 김민선5**

전북 무주 안성 골프장에서 열린 '제5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김민선5가 최종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선5는 최종라운드에서만 버디를 8개 기록하며 2위와 타수를 벌려 우승을 거뒀고, 투어 사상 54홀 최스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가장 먼저 시즌 2승의 고지에 오른
고진영**

경북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고진영이 가장 먼저 올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단독 선두로 출발한 최종라운드에서 고진영은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8타를 기록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정민 시즌 첫 우승**

수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정민은 최종라운드에서 이를 연속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쓸어담으며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하며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했다.



**2015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전인지 시즌 두 번째 우승**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5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64강전부터 여섯 번의 경쟁 끝에 지한솔과 결승에 진출한 전인지는 1타 차로 생애 첫 매치플레이 정상의 기쁨을 누렸다.



더 채리티 오픈, 이정민의 짜릿한 역전승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휘닉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더 채리티 오픈'에서 이정민이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거뒀다. 최종라운드에 공동 7위로 출발한 이정민은 17번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해 불안한 선두를 달렸지만 18번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이정민 2주 연속 우승**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이정민이 연장 끝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하며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정민은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박성현과 연장에 돌입해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뒀으며 역전승을 거뒀다.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전인지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 방어 성공**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9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전인지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전인지는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하며 같은 조에서 맞대결을 펼친 허윤경과 김보경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박성현 첫 메이저 대회 제패**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박성현이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우승을 눈앞에 두고 트리플보기를 적어내는 등 크게 흔들렸으나 경쟁자들도 타수를 줄이지 못해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시즌 첫 메이저권 자리에 등극했다.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
올시즌 첫 국내대회에서 우승한 장하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조트 코리아에서 열린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에서 장하나가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정상에 올랐다. US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나는 올시즌 처음으로 국내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뒀고, 이로써 개인통산 7승을 달성했다.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디펜딩챔피언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김효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엔골프리조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김효주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로 2년 연속 우승컵을 안았다. 디펜딩챔피언으로 참가한 김효주는 2위 평산산을 4타 차이로 가볍게 따돌리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한 고진영**

용평리조트 버치힐 골프클럽에서 열린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에서 고진영이 시즌 3승을 달성했다.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고진영은 신인 김예진의 추격을 받았지만 15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타 차로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챙겼다.





**BMW Ladies Championship 2015,
조윤지 '버디쇼'로 역전 우승**

인천 영종도 스키야72 골프클럽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5'에서 조윤지가 화려한 버디쇼를 펼치며 최종합계 18언더파 207타를 기록해 개인통산 2승을 달성했다. 조윤지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 몰아쳐 '코스 레코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전인지 한·미·일 메이저 대회 석권**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인지는 한 시즌에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4년 만에 우승한 이정은5**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이정은5가 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려 개인통산 5승을 달성했다. 최종합계 6언더파로 210타로 박소연과 동타를 이룬 이정은5는 18번홀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을 차지했다.



BOGNER MBN 여자오픈, 하민송 데뷔 첫 우승

경기도 양평 더스타휴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BOGNER MBN 여자오픈'에서 하민송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하민송은 공동 2위의 홍진주와 배선우를 6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정상에 올랐다.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유소연 치열한 샷 대결에서 우승컵 차지**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USLPGA에서 활약 중인 유소연이 3년 만에 국내 무대 정상에 올랐다. 유소연은 공동 선두로 달리던 장하나와 매치 플레이를 하듯 치열한 샷 대결을 펼치다 12번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유소연은 6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



**한화금융 클래식 2015,
노무라 하루 투어 첫 출전에 우승**

충남 태안의 골든베이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한화금융 클래식 2015'에서 노무라 하루가 투어 첫 출전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노무라 하루는 배선우와 연장에 돌입해 파세이브로 정상에 올랐다.



**이수그룹 제27회 KLPGA 챔피언십,
4차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안신애**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에서 열린 '이수그룹 제2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안신애가 대역전극으로 5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종라운드에서 8언더파로 2위로 대회를 마친 안신애는 선두였던 이민영, 이정민, 서연정이 동타로 대회를 마치면서 함께 연장전에 돌입, 4차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지었다.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박성현 시즌 두 번째 우승**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에서 박성현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김혜윤과 공동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선두 자리를 뺏기기도 했지만 13번홀부터 3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YTN · 불빅 여자오픈,
장하나 개인통산 8승 기록**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YTN · 불빅 여자오픈'에서 장하나는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해 우승컵을 안았다.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장하나는 공동 2위 하민송, 조정민, 김민선5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개인통산 8승을 달성했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박성현 시즌 3승 달성**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솔로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에서 박성현이 역전승을 거둬 시즌 3승을 달성했다. 2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박성현은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주고받으며 4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했다. 상금랭킹 2위로 오르며 박성현은 시즌 막판에 상금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전인지 상금왕 굳히기 돌입**

경기도 광주 남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 올시즌 5승을 거뒀다. 3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전인지는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서울경제 · 문영킨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김혜윤 짜릿한 역전승**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에서 열린 '서울경제 · 문영킨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김혜윤이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선두 윤채영에 5타 뒤진 공동 8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김혜윤은 버디만 8개를 잡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ADT CAPS Championship 2015,
오지현 생애 첫 우승**

부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ADT CAPS Championship 2015'에서 오지현이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오지현은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몰아쳐 공동 2위 하민송과 김보경을 6타로 따돌리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늦깎이 루키 최혜정2 생애 첫 우승**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에서 최혜정이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했다. 5년 넘도록 2부 투어에서 뛰다가 올해 정규투어에 입문한 최혜정2는 박성현의 무서운 추격에도 흔들림 없이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AHN Shin Ae

시즌 세 번째 메이저 킴,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안신애 인터뷰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많지만 골프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실력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안신애. 올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개인통산 3승을 달성한 그는 2016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투어 데뷔 7년 차, 안신애의 솔직한 골프스토리를 들어본다.

글_ 김소현 사진_ 강권신

나에게 골프라는
[최고의 행복]
이다

4번의 연장 끝에 이뤄낸 대역전승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안신애는 보기 없이 5개의 버디를 잡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2위로 경기를 먼저 마쳤다. 그러나 선두였던 이민영2, 이정민, 서연정이 나란히 그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던 것. 연장전에서의 경쟁은 치열했다. 세 번의 연장에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고, 네 번째 만에 안신애가 침착하게 버디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가장 먼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와 주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대회 현장에 계시지 않아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무척 아쉬워요."

4번의 연장으로 승부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됐을 법도 하지만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상황에 놓인 한 샷, 한 샷이 후회 없도록 신중하게 플레이에 임했어요. 제 자신을 믿고 차분히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 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시즌 초 안신애는 부상으로 인해 첫 대회 7개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선수들이 걸을 때 나는 뛰어야 한다'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시드유지를 목표로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했다. 그런 그의 노력은 값진 우승을 거머쥐기에 충분했다.

“

제 자신을 믿고 차분히 경기를 이끌어 나가려 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



안신애 (Ahn Shin Ae) / 安信愛

생년월일 1990년 12월 18일

입회연도 2008년 6월

소속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장규투어 통산우승 3승

2015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2010 하이원 리조트컵 SBS 체리티 여자오픈 우승

2010 SBS투어 제1회 히든밸리 여자오픈 우승

2015 ADT CAPS Championship 2015 4위

2015 기자자동차 제29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3위

반복된 연습, 자신만의 플레이 만들기

안신에는 골프를 시작한지 15년, 투어생활 7년 차 베테랑이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했지만 그는 '2010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을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로 꼽았다. "생애 첫 연장전에서의 우승이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긴장하고 떨린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상대선수가 파퍼트를 놓치고 저는 짧은 파퍼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남아있어요."

모든 대회의 순간들이 경험으로 쌓이며 노련미도 더해졌다.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려보며 장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시키는 등 끊임없는 연습을 반복했다. "저는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파워풀한 선수는 아니에요. 반면 정확도 부분과 쇼트게임은 자신 있어요. 그렇기에 유틸리티와 롱아이언의 정확도를 높여 그린에 공략하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부상으로 인해 떨어진 경기감각을 살리기 위해 퍼트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만의 플레이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다.





‘골프 말고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란 생각에 방황했었죠. 하지만 골프선수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던 걸 깨달았어요.



갑작스런 슬럼프 =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를 따라 연습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작하게 된 골프,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 신경이 좋았던 그는 골프에 소질을 보이며 시작한지 일 년 만에 뉴질랜드 국가대표가 됐다. “어린나이에 타국에서 학업과 골프를 병행하기에 부담이 컸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옆에서 힘이 돼주셨고 덕분에 양쪽 모두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로 전향하게 됐죠.”

2009시즌 신인왕을 차지하고, 2010시즌 2승을 달성하는 등 그는 무서운 기세로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다. 바로 슬럼프. 기대치 못한 큰 성과를 거둔 다음 해,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과 본인의 장 수술로 인해 그는 너무나 큰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수술 이후 ‘골프 말고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란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방황했었죠. 하지만 골프선수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골프채를 또 다시 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연습과 훈련을 지속하며 골프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고 당장 아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골프를 사랑하는 ‘행복한 골퍼’ 안신애

“감이 좋은, 재능이 뛰어난, 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멋진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오랜만의 우승은 또 다시 그의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아쉬웠지만 뿌듯했던 2015시즌을 마무리하며 새 시즌을 맞이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2016시즌, 우승을 넘어 다승을 목표로 전지훈련에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에요.”

더불어 그는 골프를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KLPGA 선수들을 위한 응원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멋진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투어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든 한국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의 일상 속에는 언제나 골프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다. 더 나은 실력에 욕심이 생기고 늘 고민되는 건 여느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수록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랫동안 골프를 즐기며 투어생활을 하고 싶다는 안신애. 그는 골프를 진정 사랑하는 ‘행복한 골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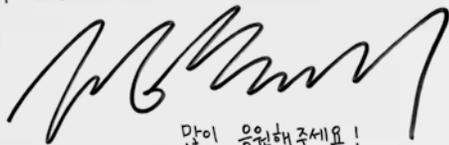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드림투어 18차전 우승자 정슬기 인터뷰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정슬기. 더불어 그는 드림투어 상위 6명에게만 주어지는 2016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얻었다. 정규투어 시드권 본선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다져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KLPGA 독자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슬기 pro

정슬기(Jeong Seul Gi) / 鄭슬기

생년월일 1995년 9월 22일

입회연도 2013년 5월

드림투어 통산우승 1승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 우승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2위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 2위

KLPGA 2015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6차전 2위



자신감을 선물해준 생애 첫 우승

요즘 정슬기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한다. 2015시즌 목표는 단 두 가지. 하나는 우승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투어 시드권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대했던 첫 우승이었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얼떨떨했어요. 머릿속에는 ‘드디어 해냈다’란 생각으로 가득 찼고 정말 기뻐요.” 몇 번의 우승 문턱에서 애를 태웠던 그것기에 이번 우승을 통해 자신감도 많이 회복했다. 평소엔 긴장을 많이 한다는 그는 이번 대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버디 찬스를 잡지 못하면 연장으로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 그는 퍼트 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긴장 때문에 플레이가 무너져 우승을 놓쳤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인드컨트롤 하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노력이 통했을까. 그는 버디에 성공하며 1타차로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그는 2015시즌을 뿌듯하게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수줍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은 ‘긍정에너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정슬기. 되려 그는 자신의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웃을 일이 많다고 한다. “부모님, 가족들, 박금숙 교수님, 안흥기 프로님, 박상민 프로님, 윤경 언니, 지호 오빠... 제가 지금까지 골프를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골프대회를 보면서 부모님을 졸라 시작하게 된 골프. 그렇게 시작한 골프는 그에게 ‘잘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만 가져다줬다. 그때마다 그의 옆에서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이었다. 덕분에 그는 꾸준히,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

함께 운동을 하는 동료들은 투어 생활에 소소한 행복을 더했다. “KLPGA 201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디비전 때, 경기가 없는 날이면 임슬기 언니와 컨트리클럽 주변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골프가 만들어 준 인연이기에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힘이 돼주고 있다. 그가 늘 웃음 가득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새롭게 다지는 각오, ‘즐겁게’ 플레이하기!

정슬기에게 2016년은 더욱 기대되고 설레는 시즌이 될 것이다. 올시즌에 드림투어 상금순위 3위를 차지하며 정규투어 시드권을 획득한 그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각오도 대단했다. “동계훈련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요. 우선 부상 당한 손가락과 손목 재활치료를 마칠 때까지는 체력을 더 보강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나서 쇼트게임에 집중해서 연습해야죠.”

꾸준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는 플레이를 선보이는 박인비를 닮고 싶다는 그는 사람들에게 스타플레이어가 아닌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한다. “내년은 1부 투어에 적응하고 골프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시드 유지를 다음 시즌의 제 작은 목표로 즐겁게 플레이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모습을 더욱 궁금케 하는 정슬기. 정규투어에서도 지금처럼 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하나의 팀이 되어, 한국여자골프의 자존심을 내건 명승부

Golf Team Match Play Competition

각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데 모여 각 국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대회. 199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한일국가대항전으로 열 두 번의 멋진 대결을 펼쳤다. 올해는 이 대회의 발전된 형태로 4개 투어가 모여 '더퀸즈 presented by 코외'를 개최해 세계적인 선수들의 명승부를 더욱 기대케 한다.

글 _ 김소현



고진영



김민선



김세영



박성현



주정
이보미



배선우



이정민



전인지



조윤지

한국여자프로골프 최강의 드림팀!

지난달 KLPGA는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에 출전할 선수를 구성해 발표했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의 종료기점으로 상금순위 상위 7명인 전인지, 박성현, 조윤지, 이정민, 고진영, 배선우, 김민선5가 선발됐고, 추천선수로는 US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세영과 JLPGA 상금순위 1위인 이보미를 선발해 최강의 한국 드림팀을 꾸렸다.

이번 대회는 작년까지 개최했던 한일국가대항전의 발전된 형태로 KLPGA와 JLPGA(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LET(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LPG(호주여자프로골프협회) 등 4개 협회가 참가해 각 투어의 자존심을 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출전선수는 현재 각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9명씩 선발해 총 36명이 참가한다. 총상금액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의 규모로 치러지며, 경기 방식은 1라운드 포볼 매치플레이, 2라운드 포섬 매치플레이, 최종라운드 싱글 매치플레이로 진행하여 팀의 승패를 가린다.

참가선수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사명감과 더불어 팀워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기도 하다. 필드 위에서 경쟁상대가 하나의 팀이 되어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단합이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다. 대회에 출전할 드림팀 라인업이 발표된 가운데, 해외 언론은 벌써부터 골프 강국의 팀플레이를 주목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 되어, KLPGA 선수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막강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수, 7승2무3패

그럼 국가대항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골프 발전뿐 아니라 우호 증진을 위해 '한일국가대항전' 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KLPGA와 JLPG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국가전을 펼치는 것이기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도, 골프팬들에게도 의미가 남달랐다.

2014년까지 일본과 총 12번의 대결을 펼쳤던 한국의 역대전적은 7승2무3패, 압도적으로 승수가 높다. '제1회 핑크스컵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과 그 다음해 '제2회 핑크스컵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서 두 번 연달아 패배했고, 2007년 '제8회 코리쿠컵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는 1, 2라운드 승부가 나지 않는 팽팽한 경쟁을 거루다 세 번의 연장 끝에 아쉬운 패배를 맛보기도 했다. 세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한국팀은 대부분의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낙승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열린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에서는 최종합계 한국팀 27점, 일본팀 11점으로 압승을 거뒀다. 2년 만에 열린 한일국가대항전이었고, 이 대회 역시 세계 3대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에 멤버로 구성된 팀이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 선수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갔다. 끈끈한 팀워크도 한 몫을 했다. 1라운드 경기 방식이 포볼 플레이인 만큼 경기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국팀은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같은 조가 될 수 있도록 배치했던 것. 이 전략으로 먼저 승점 9점을 획득하며 일본팀을 기선 제압했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

한일국가대항전의 요모조모, 비하인드 스토리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경기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캡틴 강수연을 비롯해 한희원, 김미현, 송보배 등 최정에 멤버들로 구성했던 '2005 핑크스컵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은 폭설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면서 1라운드의 결과인 무승부로 아쉽게 마무리되기도 했다. 2008년에 열린 '핑크스컵 제9회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역시 폭설로 인해 1라운드가 취소됐고 2라운드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했다. 이날 대회 스폰서인 핑크스 골프클럽측은 100여 명의 전 직원을 동원해 공공 열어있던 그린을 온천수로 녹이고, 눈으로 뒤덮인 페어웨이를 치워나가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대회가 취소됐다. 대신 제작업에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난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9개홀만 라운드하는 이벤트성 대회를 가졌고, 양국 선수단들은 스폰서와 갤러리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승패의 상관없이 플레이를 즐겼다. 그리고 양국 합의하에 무승부로 대회는 마무리됐다.

한일국가대항전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는 누구일까? 장정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일곱 차례 선발됐으며, 박세리와 김미현, 전미정이 여섯 번 한일국가대항전에 참가했다. 최근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지애가 다섯 번 연이어 참가해 활약을 보여줬다. 이들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토대로 팀의 수장을 맡아 한국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력이 출중한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항전에 선발되어 한국여자골프의 자존심을 내건 선의의 경쟁을 치렀다.

해외투어에 임하고 있는 선수일지라도 국가대항전은 '한국'이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선수들끼리 푹푹 뭉치게 하는 힘을 만든다. 골프팬들도 개인이 좋아하는 선수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 한국팀을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싱그러운 자연과의 설레는 만남!

군산컨트리클럽 GOLF & RESORT

자연과 함께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군산컨트리클럽

서해안과 새만금개발의 중심도시인, 군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규모(총 81홀)의 골프장으로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는 골프메카로 성장 및 발전하고 있습니다. 총 81홀의 총길이는 31km이며, 골프장 전체 외곽길이만 총 8.5km입니다. 24개의 다리(퍼블릭 18개, 회원제 6개)가 81홀을 모두 연결시키고 있어 라운드를 하다 보면 호수 위에 떠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퍼블릭 및 회원제 클럽하우스 2층의 레스토랑에 서면, 그림 같은 새만금과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곳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골프인구의 확대와 관광·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라 골프텔을 금년 겨울 착공할 예정이며 서울과 경기권 골퍼들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_ 군산컨트리클럽



1 서해안의 관광 1번지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부근에 위치

한국 골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0여만 평에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을 조성하였으며, 전 홀이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양잔디로 광활한 8홀 대자연이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 입니다. 세계적인 코스 디자이너 닐 하워드 회장(Nelson & Haworth)이 한국 최초로 설계한 회원제는 정통 유럽풍의 디자인에 한국적인 분위기를 가미시켜 회원들의 품격에 맞는 명품코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제는 코스별 난이도가 차별화되어 있어 고객님 수준에 맞는 코스에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1,004m홀(정음 코스 3번홀)과 이벤트 홀인 홀인원 홀(갈대기홀/남원 코스 8번홀)등 이색 코스가 있어 짜릿한 도전과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2 더불어 사는 군산컨트리클럽

군산컨트리클럽은 인재육성과 골프 대중화 및 골프 꿈나무 육성 등 체육발전을 위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골프장, 편안함을 드리는 골프장,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골프장,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골프장. 바로 군산 컨트리클럽입니다.

우리 골프장은 전북지역의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부안, 남원, 순창 등 시·군 지명을 따서 코스명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골프장들은 골프장 이름부터 외국어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자 군산컨트리클럽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의 각 지역을 전국에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내장객 설문을 한 결과, 코스에 명명된 전북의 시군은 당사가 의도한 목적대로 전국의 골퍼들에게 그 지명을 널리 알리면서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의 단체룸 이름 또한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방축도, 무녀도, 선유도 등 군산이 자랑하는 유명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섬들의 이름을 따서 관광지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 환경과 사람, 自然을 생각하는 골프장

국내 골프장 중 처음으로 잔디 예지물을 원료로 한 액체비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코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 골프장 중 최초로 화학비료 대신 잔디깎은 예지물을 분쇄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이를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0만 평의 골프장 면적 중 36%에 달하는 46만 평을 수로로 조성하였고 여기에는 송어와 붕어 등 수식 가지 어종이 갈대와 함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백로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가 4계절 골프장을 찾아와 새로운 철새 천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46만 4천 평의 호수에는 친환경적인 조건을 조성함은 물론, 골프를 즐기면서 4계절 호수에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갈대가 자생하여, 4계절 호수와 갈대와 철새들이 어우러지는 정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빨춤으로 조성되어, 겨울에는 페어웨이, 그린 등이 얼지 않고, 여름에는 지열이 올라가지 않으며 서해안의 바람이 불어와 시원합니다.



☺ **솔병원** 이 알려주는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맨손으로도 잘해요 II

골프를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맨손 운동 중심)

글 _ 나경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조회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맨손체조를 빼먹지 않고 했을 것이다. 대부분 좋아서 하기보단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시늉만 냈다. 특히 대학시절 교련시간에는 운동권이든 아니든 괜한 반항의식에서라도 열심히 한 적이 없을 것이다. 군대에서야 경우가 다르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학창생활이 끝나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쩌다 한번 회사연수나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맨손체조를 해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맨손체조가 우리 몸을 유지하고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칭은 물론 근력을 키울 뿐 아니라 뼈와 근육의 밸런스를 확보하게 돼 부상을 방지해 준다.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손목관절, 팔뚝 안쪽과 바깥쪽 근육, 어깨, 복근, 등근육, 허리, 척추, 엉덩이근육, 다리, 무릎관절, 발목에 이르기까지 거의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골프스윙을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것도 순간의 속도에 말이다. 이 때문에 근육의 힘과 유연성, 관절부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골프에서 안정성 향상으로 일관된 스윙에 도움이 되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맨손 운동들을 배워보자.

지난달에 이어 12월호에는 '골프 안정성 향상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Level I 단계를, 1월호에는 Level II 단계를 소개한다.

솔병원은 K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별 전대회)에 전담 의무팀(앰블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 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골프 안정성 향상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Level I

1 - 6 브릿지 익스텐션(Bridge extension) 운동



- 방법 : ①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손을 바닥에 편하게 놓는다.
② 엉덩이를 수축한 상태로 골반을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린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7 큐 세트(Q-SET) 운동



- 방법 : ① 매트에 앉아서 무릎 아래 부위에 수건을 놓고 준비한다.
② 발끝을 복부 쪽으로 당기고, 대퇴사두근(허벅지 앞근육) 부위를 수축하여 슬와근(무릎 뒷근육)으로 수건을 강하게 누른 상태로 6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양쪽 10회, 3세트 실시한다.

1-8 발목에 힘주고 움직이지 않기 운동

발목 등척성 운동



- **방법** : ① 바닥에 앉아서 발과 발을 맞닿게 놓고 왼발은 당기고 오른발은 밀면서 6초 정지 후 힘을 뺀다.
 ② 베개를 벽에 대고 발을 아래쪽으로 힘을 준 상태로 6초 정지 후 힘을 뺀다.
 ③ 발을 서로 맞닿게 대고 발을 안쪽, 바깥쪽으로 힘을 준 상태로 6초 정지 후 힘을 뺀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9 카프 레이즈(Calf raise) 운동



- **방법** : ① 골프클럽 혹은 기둥을 잡고 서서 준비한다.
 ② 이 상태에서 발을 위로 밀어서 3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20회, 3세트 실시한다.
 계단, 보도블럭, 박스 모서리 부근에 서서 실시할 수도 있다.



2016년 1월호에 이어집니다.

NH투자증권

해외투자 상품의 과세와 절세상품

김동의 과장 (NH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 상품기획부)

추운 겨울이 오면 더 이상 국내에서 골프를 치기 어렵게 된다. 특히 12월말부터 2월 사이에 국내에서 골프를 치려면 눈 덮힌 길 위로 비닐 장막을 친 카트를 타고 누런 잔디를 밟으며 스윙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많은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골프를 잠시 쉬어도 좋으려면 그래도 골프가 너무 좋아서 치지 않을 수 없다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가깝고 따뜻한 나라를 찾아 떠나게 된다.



■ 해외상품 종류별 과세 체계

구분		과세체계 (양도소득세 22%, 배당/이자소득세 15.4%)	비 고
해외증권 직접투자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 연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年 250만 원 공제)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은 결제대금 입출금일 기준환율 적용으로 원화 환산 하여 과세되므로 투자기간 내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 cf. 국내주식은 매매 · 평가차익 비과세(대주주는 과세), 배당소득만 과세
	해외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 비과세 • 이자소득 : 이자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해외 ETF	국내상장 해외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은 '과표기준가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 적용 • 분배금(배당, 이자 등) :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어 과세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은 비과세
	해외상장 역외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 해외주식과 역외 ETF 합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 분배금(배당, 이자 등) : 배당소득세 	
해외펀드	역내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발생 모든 소득 : 배당소득세 - 매매 · 평가차익, 이자 · 배당소득, 환차익 등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대상으로 매년 결산하여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세 Vehicle 존재 : 연금저축계좌, ISA(예정), 비과세 종합저축, 재형저축펀드, 해외주식 투자전문 펀드(예정)
	역외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발생 모든 소득 : 배당소득세 (단, 환매 시점에만 과세) - 환매시점에 조절을 통해 절세 가능 	
Wrap		Wrap의 경우 편입자산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과세체계 적용	

국내가 어려울 때 해외로 나가는 것은 비단 골프뿐만이 아니다. 투자, 재테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부동산과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전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는 1%대로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저금리 시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성장성 높은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과세인데 이번 호에서는 해외투자 상품의 과세와 절세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투자는 크게 해외주식, 채권을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간접 투자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해외상품의 과세체계를 보면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역외 ETF를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류과세하고(연간 250만 원 공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해외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국채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쉽게 접하는 해외펀드는 모두 역내 해외펀드로 보통 해외펀드라 하면 역내 해외펀드를 의미한다. 과세의 경우 역내 해외펀드는 매매/평가차익, 이자/배당소득, 환차익 등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매년 결산 후 과세하고 있다. 역외펀드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환매시점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환매시점을 조절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보통 해외 투자 상품을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와 평가차익이 비과세되는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였을 때는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는 최대한 절세 방법을 확인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8월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와 비과세 해외펀드의 내년 도입을 예고하였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에 대해 좀더 친숙해질 것 같다.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은행 예·적금은 물론 자산운용사의 펀드, 증권사의 ELS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되 만기 때 투자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에 따르면 ISA 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금

용소득종합과세자 제외)가 가입가능하고,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유지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된다. ISA계좌는 계좌 내에서 예금, 적금, 국내외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발생 수익을 합산하여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예상된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경우 2017년말까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시 비과세 세제혜택이 있으며, 운용기간 최대 10년 동안 투자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 ISA 계좌 vs 비과세 해외펀드(예정안)

명칭	ISA 계좌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기간	2016년 3월~2018년(3년간)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2년간)
가입대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대한민국 거주자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1인당 3,000만 원
의무가입기간	5년	없음
세제혜택	발생 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세제혜택기간은 운용기간 10년간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상품특징	예적금, 국내외 펀드, ELS 등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펀드 매수.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시 세제혜택

비과세 해외펀드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발생수익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절대 금리가 낮은 현시점에서는 국내예금, 적금보다 해외 펀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도 출시될 절세 상품을 해외투자에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이고 높은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ISA 계좌 관련 내용은 작성 시점인 11월 기준으로 최종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LPGA 허빛나 프로(회원번호 00407)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의 힘, 나의 빛 새로운 나를 찾다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협회지에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KLPGA 협회지 'KLPGA members'에 실어드립니다!

주말 나들이, 취미 생활, 투어 뒷이야기,
나만의 건강관리 팁 등 소소한 일상부터 혼자 떠난
여행, 가족 행사, 생일파티 등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까지 회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서로 몰랐던
일상을 공유하며 회원들끼리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
자유주제 글과 관련 사진을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꾸며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깎이로 출발한 KLPGA 프로골퍼를 향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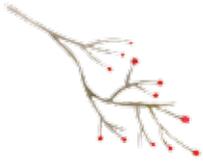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 운동을 좋아하던 내가 우연히 접하게 된 골프. 짧은 3년 동안 오로지
골프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며 나 혼자가 아닌 부모님과 함께 오직 KLPGA 정회
원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린 결과 3년 반 만에 나는 정회원이 되었다. 2부 투어를 통
하여 더욱 자신감을 얻어 대학 진학을 미루고 투어의 길을 택하였다.

투어의 길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무안
정규투어 시드젠 후, 생각조차 하기 싫다. 처음의 그 열정과 꿈보다 무조건 '해야 한
다'는 압박감과 체격과 마음의 부담감들. 모든 것이 힘들고 싫은 추억이지만 지금
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당연히 지나와야 할 터널이었다는 것을.

새로운 나, 그리고 행복한 삶

레슨프로라는 직함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나, 허빛나는 지금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레슨의 길로 진로를 바꾸면서 처음으
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 지금도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딸 바보 우리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모두에게 말할 수 있다. 꼭 투어가 아니라도 내
삶의 행복과 멋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연습장을 내 인생의 무대로 삼아 마음껏 날아보려고 한다. 소비
의 도시 진주에서 여자 정회원프로가 귀한 편이라 대접은 잘 받는 편이다. 그렇게 크
지도 않은 연습장이지만 날이 갈수록 모두가 한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소통하며 골프라는 주제 안에서 엄마처럼, 때론 오빠처럼, 때론 친구



가 되었다. 외국인 제이콥과 서툰 영어로 친구가 되고 엄마 같은 친구가 되자는 회원님까지... 초보 삼총사와 즐겁게 라운드하면서 너무 웃어 턱이 빠질 뻔한 날들.

수많은 날들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다방면 직업인 속에서 알지 못했던 지식들도 귀동냥하고, 내 또래 젊은이들과 서로 꿈을 이야기하며 때론 오십대 몸치 사모님 때문에 울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의 주제가 매일 다르고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며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다.



항상 힘이 돼주는, 하나 뿐인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작은 아이지만 난 할 수 있다'고 늘 내 기를 살려주며 항상 곁에서 기도로 지켜주는 나의 어머니.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 한번 안하고 나의 모든 것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주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로 인해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잘 참아주고 격려해준 우리 오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한 내가 있음을 고백한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가족여행으로 함께 제주도에서 라운드할 때 다시 한 번 내가 골프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단합과 사랑을 파이팅하면서!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외로운 자가 행복해지고 슬픈 자가 기쁨이 되는 그런 프로골퍼가 되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파이팅하며 하루를 연다. 투어를 뛰며 레슨을 하며, 방송을 하며, 강의를 하며, 다방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멋진 프로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한다.





글 _ 김윤성(KLPGA 명예기자) 사진 _ 박준석(KLPGA 공식사진기자)

KLPGA 피플

KLPGA투어 코스해설

배경은, 신나송, 박시현 프로



지난해부터 KLPGA투어 단독 중계를 하고 있는 SBS골프는 선수들의 360도 스윙 영상을 담은 타임슬라이스에 이어 미국투어처럼 필드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투어 경험이 있는 배경은, 신나송, 박시현 세 명의 프로에게 코스해설을 맡겼다. 다양한 중계 화면에 이어 세 코멘테이터의 코스해설이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은 선수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방송을 통해 대회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배경은, 신나송, 박시현 프로를 한 자리에 모아 생생 토크를 하고 싶었지만 레슨과 방송일정으로 대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각각 만났다. 코스중계의 매력, 서로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궁금하다.

배경은 골프매거진 'THE GOLF' 레슨 연재와 더케이골프연습장에서 레슨하고 프로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SBS골프아카데미는 16주하고 끝났는데 첫 생방송이라 부담감이 심했다. 1주일 동안 원고를 달달 외웠는데 방송 들어가서는 막상 안 나오더라. 골프 관련 일들을 즐겁게 한다는 게 재밌다. 그리고 천건우 해설위원과 함께 US여자오픈 해설을 하는 기회를 얻었다. 7년간 USLPGA투어 경험이 도움이 됐다. 큰 무리 없이 잘 끝나 다행이다.(웃음)

신나송 현재 생방송으로 하는 SBS골프아카데미에서 '신나송의 신나는 레슨'과 한국경제신문 골프칼럼, 골프매거진 '골프 위민' 레슨 등으로 바쁘게 살고 있다.

박시현 SBS골프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을 진행하고 있다. 1년짜리 장기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많이 빠진다. USLPGA 클래스A 준비하느라 두 달간 미국에 다녀왔다. 실기, 필기 통과했고 이제 논문만 남았다.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하고 논문 쓰느라 정신이 없다.



코스해설을 맡게 된 계기는?

배경은 SBS골프에서 제안을 받고, 내가 해도 되는 걸까? 고민했다. 지난해까지 투어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많지만 방송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망설였던 게 사실이다. 방송관계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 고민했는데 나송이와 시현이의 적극적인 지지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신나송 경은이랑 시현이 우리 세 명 모두 과거 투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것 같다. 미국처럼 코스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시청자들에게 좀 더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싶다는 제작진의 제안에 잘 해보고 싶었다.

박시현 작년에 우승 선수 인터뷰를 1년간 혼자 진행했다. 국내대회도 코스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흥미로울 것 같았다. 선수들과도 친하고 내가 시합했던 곳이라 자신 있었다.



첫 코스해설 어땠나?

배경은 아, 첫방송...(웃음) 기억난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 대회였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카메라, 오디오 감독님까지 도움을 주더라. 참, 고덕호 프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SBS골프아카데미나 코스해설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신나송 '제5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이 열렸던 무주안성 CC였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 너무 좋아서 떨렸던 것 같다. 아마추어 레슨만 하다가 다시 필드에서 선수들을 보니 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박시현 올해 제가 맡은 대회에 유난히 비가 자주 왔다.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도 그렇고 '삼천리 Together Open 2015'와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는 비 때문에 라운드가 취소됐다. 심지어 고교동창 최강전까지 비가 온다. 우신(雨神)이란 별명을 얻을 것 같다.(웃음)



코스해설 준비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배경은 작년까지 뛰었던 코스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준비과정은 많이 걸리지 않았다. 선수들과 공식 연습일에 참가해서 코스 파악은 물론 방송에 중계되는 상위권 선수들의 구질이나, 골프 스타일, 그날의 컨디션 등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해 시청자들 궁금해하는 부분을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다.

신나송 잔디의 종류, 상태에 따라 선수들의 샷이 변하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한다. 해설위원, 선수들과 연습라운드를 함께 돌면서 핀 위치나 어려운 홀을 파악해 두고 전년도 기록도 체크해 둔다. 해설위원은 모든 홀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 특정 홀만 중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힘든 편이다. 선수 개개인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틈틈이 외국중계도 보고 자료도 찾아본다.

박시현 공식연습일에 가서 선수들과 함께 라운드하면서 핀 포지션을 주의 깊게 본다. 선수 때보다 더 열심히 코스를 꿰뚫고 그린을 분석한다. 선수들은 대부분 특정 홀에서 같은 실수를 하는데 어느 홀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체크한다. 방송으로 보면 평평하고 바람도 안보이고 구질도 파악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중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배경은 라운드 전 아침에 선수들과 얘기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선수들에게 다가가기가 조심스럽다.

신나송 경은이 말처럼 저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좀 미안하다. 시간을 뺏는 느낌? 리듬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선수들의 마음을 아니 더 미안한데 선배라고 흔쾌히 대답해 주는 후배들이 고맙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웃음)

박시현 내가 아는 코스라 쉬운 편인데 선수들이 멀리 있어 라이가 파악이 안 될 때가 간혹 있는데 그 상황을 명확하게 전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트러블 상황에 빠져있을 때 골프규칙을 설명하기 어렵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더 해야 한다.

대회장에서 갤러리는 무엇을 궁금해 하던가?

신나송 아마추어들은 선수들의 드라이버 거리가 얼마나 나왔나 궁금해 한다. 아직 거리를 포기 못하더라. 또한 선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샷 결과까지 원하기도 하는데, 선수의 구질이나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샷 결과가 일정치 않은 어려운 점이 있다.

박시현 맞다. 거리를 많이 궁금해 한다.

외국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배경은 USLPGA는 코스 코멘테이터가 매 홀 따라 다닌다. 방송장비나 환경도 좋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경기 중에도 코스에서 선수들과 대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적인 문화라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나송 현재 남은 거리는 알 수 있는데 선수들이 어떤 클럽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미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가능할 것 같다.

대회장에서 선수들 플레이를 보는 느낌은? 특히 배경은 프로는 작년까지 뛰었던 코스라 감회가 남다르겠다.

배경은 코스 곳곳이 생생하다 보니 선수들에게 주고 싶은 정보가 많은데 선볼리 말은 못하고 참고 있다.(웃음)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설레더라.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고 선수 일 때 몰랐던 것들이 보여 흥미롭다. 대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지 사실 몰랐다.

신나송 코스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게 레슨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동안 레슨만 하다 보니 연습량이 부족해 스윙이 좋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스윙이 간결하고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 선수들의 샷을 자주 보니 좋아졌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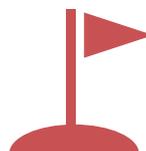
박시현 선수시절이 더 재미있었다. 긴장되고 스릴 있고... 난 녹화방송보다 생방송을 더 좋아한다. 긴장하면 집중이 더 잘된다. 투어 때도 챔피언조에서 갤러리나 카메라가 많을 때 성적이 좋았다. 멘탈이 좋다. 떨리는데 즐기는 편이다. 문제는 체력이 안 된다.(웃음)

서로의 장단점을 색으로 표현해 달라.

배경은 나송이는 스타일과 목소리 톤이 좋고 자연스럽다. 외유내강인 친구다. 이름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경쾌하고 화려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가 생각난다. 시현이는 방송선배로 시스템을 정말 잘 알고 있다. 단정하면서도 똑 부러진 느낌이 있는 빨강이 어울린다. 나는 투어 경험은 많지만 시청자들에게 전달과정이 미흡하다. 약간 어설피고 새내기 같은 노란색 느낌. 오늘도 노란색 의상을 입었다.(웃음)

신나송 색으로 표현하려니 어렵다.(웃음) 경은이는 우승 경험이 많고 경력이 화려하다. 그만큼 챔피언조에서 느꼈던 감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올해 방송에 데뷔해서 풋풋하고 귀엽다. 순수함이 많이 묻어나는 에메랄드 같은 친구다. 시현이는 방송 경력이 오래 됐고 잘한다. 센스가 좋고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 항상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빨간색 느낌이다. 내 장점은 편안함과 솔직함이 아닐까. 잘 모르겠다.(웃음) 파란색을 좋아한다.

박시현 나송 언니는 말을 정말 잘 한다. 귀엽고 발랄한 노란색이 떠오른다. 경은 언니는 국내외 투어 경력과 우승 경험이 많다. 방송은 처음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보라색 같다.(웃음) 나는 선수들을 편하게 해준다. 밝은 하늘색?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빨간색이다. 나와 잘 어울린다. 투어 때도 빨간색을 입으면 잘했다.





대회장에서 만나는 갤러리에게 부탁의 말이 있다면?

배경은 갤러리가 많아지면서 같이 즐기고 배려하는 문화가 엮인다.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 항상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선수가 아님에도 '배경은 선수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질책 바란다.

신나승 요즘 갤러리 매너가 매우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플레이가 끝나면 바로 이동하지 말고 다른 선수도 플레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력도 함께 향상된다.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응원 부탁드린다.

박시현 사진 찍자고 먼저 해주시고 유난히 먹거리를 많이 받아 친해졌다. 다음날 SNS 친구를 맺어 소통하고 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투어를 뛰는 선수들에게 한 마디

배경은 선수들 너무 잘해서 조언해줄 얘기가 없다. 시즌 끝까지 힘내라고 응원 해주고 싶다.

신나승 투어를 뛰는 모든 선수들 멋지고 존경스럽다. 정말 힘들고 고독한 생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 늘 마음이 짠하다. 성격이 좋고 나쁘건간에 현재를 즐기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남자대회가 많이 줄어들어 선수들이 레슨을 병행하면서 국내외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같은 골프인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언제든지 여자프로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자대회에 대한 관심을 잘 유지해 후배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다들 힘내고 파이팅!

박시현 늘 느끼는 거지만 즐겼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라고 자주 얘기하는데도 여유가 없어서인지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다. 취미가 있어야 골프가 안 될 때 스트레스 해소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은 무엇인가?

배경은 사람을 좋아했다. 걸로로는 쾌활하고 활기차게 보이지만 외로울 때가 많아 사람이 그리웠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다. 골프선수일 때도 그렇고 방송과 레슨을 하는 지금도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 또 하나 올 연말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웃음) 만삭이 되기 전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해설도 하고 싶다.

신나승 현재 연세대학교원 스포츠레저학과 휴학 중이다. 먼 훗날 교수로 강단에 서고 싶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 신문에 연재중인 레슨 칼럼을 정리, 보완해서 내년쯤에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박시현 USLPGA 클래스A 논문을 올해 안에 써서 제출해야 한다.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주니어선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추어와 달리 선수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론 공부도 더 해야 하고, 골프규칙도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USLPGA 클래스A도 이런 계획 중 하나다. 아마도 5~7년 뒤에나 가능 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KLPGA투어 코스해설을 나승 언니, 경은 언니랑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경은 언니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그러지 말고 오래했으면 좋겠다.(웃음) 셋이서 하니 각자 색깔이 있어 재밌다. 언니들 우리 오랫동안 함께해요~

몸은 더욱 따뜻하게, 클럽관리는 더욱 꼼꼼하게 겨울라운드, 추위를 이기는 법!

제법 추워진 날씨 탓에 라운드를 망설이게 된다. 장시간 야외에서 즐거운 골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보자.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필드 위의 겨울 동반자, 빠뜨릴 수 없는 'Hot'한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또한 겨울일수록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클럽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_ 김소현



라운드 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겨울 필수품

골프는 클럽을 잡고 플레이를 하는 스포츠이기에 추운 겨울철이면 공공 얼어버리는 손이 골치다. 추위를 잠시나마 녹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핫 팩이다. 핫 팩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붙이는 핫 팩을 이용해 옷 인쪽에 붙여주면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팔워머 등을 이용해 손목과 팔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쉽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넥워머도 유용하다. 실제로 인체에서 얼굴과 목은 다른 보위보다 혈관이 많기 때문에 넥워머 등으로 따뜻하게 한다면 체감온도가 5도 가량이나 상승한다는 사실! 장시간 라운드에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아닐 수 없다.

몸의 회전을 중요시하는 골프에서 춥다고 스윙에 방해되는 두툼한 점퍼나 두꺼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법. 얇은 옷을 겹겹이 입는 것이 체온유지에 더욱 도움이 되며, 기능성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는 것이 좋다. 또한 잔디에 살얼음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쇠 징으로 된 골프화를 착용해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추운 날씨, 더욱 신경 써야 하는 '클럽관리'

추운 날씨에는 클럽이 충격에 약해지기 마련. 이럴 때일수록 클럽관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평소와 같이 젖은 수건으로 클럽을 닦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물기가 클럽 헤드 홈에 끼어 얼게 된다면 임팩트 시 빗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패션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클럽 보호커버들은 겨울에 그 빛을 발한다. 얇은 드라이버 페이스 등 깨지기 쉬운 클럽들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겨울에는 그립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냥 방치해두면 그립이 쉽게 딱딱해져 클럽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바닥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그립에 묻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보름마다 한 번 정도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공공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따뜻한 차 한 잔

라운드 시에 따뜻한 차 한 잔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다. 따뜻한 차를 텀블러에 담아 이동시에 틈틈이 마셔주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수분 보충에도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차는 생강차와 대추차가 있다. 생강차는 몸의 찬 기운을 없애주고 두통과 기침 등이 심한 감기에 좋다. 오래전부터 강장제로 쓰이는 대추차는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혈액 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차와 계피차,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은 유자차와 모과차 등을 함께 한다면 추운 날씨에도 라운드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소
오지현



오지현 프로님의 생애 첫 우승을 축하합니다.



오지현 프로님, 파이팅~

오지현 프로님께

먼저 오지현프로님의 ADT 캡스(1/12 Caddie Bib) 챔피언십 대회 생애 첫 우승을 축하합니다. 정말 그 기억 오래 간직하고픈 마음에 경기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신들린 샷과 더불어 우승조에서 펼치는 게임에도 흥분하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 예민해진다든 다른 선수들과 달리 우리 오프로님은 그 와중에도 모든 갤러리들의 성원과 응원에 화답하며 참 밝게 웃음 지으며 편안한 생각을 갖게 해 주는 배려가 몸에 밴 프로골퍼라고 생각합니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때는 가까이에서 응원을 했었지만 우승을 한 ADT 캡스 챔피언십대회는 직접 내려가질 못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역시 SBS골프는 목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KLPGA대회가 열리는 곳곳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방송으로 생애 첫 우승 장면을 지켜보았죠.

대회 FR은 그 분이 오신 듯 버디쇼를 연출하며 일찍이 승부가 났죠 ㅎㅎ

그 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준 오지현 프로님을 가까이에서 응원하고자 팬카페를 찾아보았는데 찬사와 우승에 대한 기사들만 무성하더군요.

그래서 '카페 개설을 해 볼까?' 생각하니 모든 게 걱정이었지만 저의 생활권이 용인과 이천이라 KLPGA투어가 많이 개최되기에 따끈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자산이라 여기고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페명은 프로님 이름을 활용하여 오로지 유일한 사랑이오 프로님을 향하고 당신을 응원한다 의미로 'Oh로ji 매력hyun사랑 팬카페'로 정하고 우승 재킷과 바지가 청색으로 깔맞춤된 드레스 코드까지도 우승을 예감한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피 대문과 모든 창을 청색으로 밀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청순 발달한 투어생활 새내기이듯이 우리 카페도 오 프로님과 함께 성장 발전해 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국가대표생활을 거치며 검증된 탄탄한 실력으로 2승, 3승으로 이어지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오지현 프로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지현 프로님 파이팅~~

카페지기 김선생



선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좋아하는 선수와 얽힌 특별한 추억 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수 팬레터로 선정된 글 한 편은 매 달 'KLPGA members' 지면에 실릴 예정이며 선정된 분께는 올해 협회지를 매달 한 부씩 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팬레터를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모자에 받은 싸인, 기념품 등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호에는 해당 선수의 인증샷과 소감도 함께 실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rom 11월호 협회지에 실린 팬레터와 인증샷 찍는 안신애



저에게는 매 대회 참가 할 때마다 모든 홀을 걸으며 항상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가족만큼 가까워진 팬이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풀려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승을 못해도 항상 저의 편이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노라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노력하고 훈련하여 더 멋진 선수로 거듭 나도록 이 길을 계속 걸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길을 조금 더 걸어 가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음악 좋아해?

I'm hooked on hip hop music because I love to dance. How about you?
춤을 걸 좋아해서 힙합 음악에 빠져있어. 너는?

I prefer listening to ballad music because it calms my mind.
난 발라드 음악을 선호해. 왜냐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니까.

I see. Do you have a favorite artist?
그렇구나.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있어?

Yeah. I like Brian McKnight.
His voice is so sweet.
응. 난 브라이언 맥나이트를 좋아해. 목소리가 감미로워.

His music is not my cup of tea.
그 사람 음악은 내 취향이 아니야.

Really? I think his music is the best!
그래? 난 그의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해!



일본어
김수진 강사

へー、ギターが弾けるんですか。
へー、ギターがひけるんですか。
해-, 기타가 히케룬데스까?
왜 기타를 칠 수 있어요?

習い始めたのは1年前なんですけど、最近やっと好きな曲が弾け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ならいはじめたのはいちねんまえなんですけど、さいきんやっとすきなきよくがひけ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나라이 하지메타노와 이찌넨마에난데스께도, 사이킨 영또 스끼나 교꾸가 히케루 요오니 닛텐데스 배우기 시작한 건 1년 전인데요, 요즘에 드디어 좋아하는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どんな曲が好きなんですか。
どんなきよくがすきなんですか。
든나 교꾸가 스끼넨데스까?
어떤 곡을 좋아해요?

ロックバンドの曲です。
ろっくばんどのきよくです。
록고밴도노 교꾸데스
락밴드의 곡이에요.

すごいですね。私はクラシックしか聞かなくて、ロックのこと、全然知らないんです。すごいですね。わたしはくらしっくしかかなくて、ろっくのこと、ぜんぜんしらないんです。스고이데스네. 와타시와 쿠라시쿠시까 키끼나푸메 록고노 고토 쥘젠 시라나인데스 대단하네요. 저는 클래식밖에 안 들어서, 락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중국어
권보민 강사

听过这首歌吗? 真的太好听了! 我都听了快一百遍了。
Tīng guo zhè shǒu gē ma? Zhēn de tài hǎo tīng le!
Wǒ dōu tīng le kuài yì bǎi biàn le.
이 노래 들어봤어? 진짜 너무 좋아!
나 거의 백 번은 들은 거 같아.

这首歌啊! 我知道! 是《她很漂亮》里面的歌儿吧!
Zhè shǒu gē a! Wǒ zhīdào! shì 《Tā hěn piàoliang》 lǐ miàn de gē ba!
이 노래! 나 알아! (그녀는 예뻐다)에 나오는 노래잖아!

对! 我觉得电视剧配上插曲后变得更有感觉。
Dui! Wǒ juéde diànshìjù pèi shàng chāqǔ hòu biàn de huì gèng yǒu gǎnjué.
맞아! 드라마에 OST가 들어가서 어우러지면 훨씬 느낌 있게 바뀌는 거 같아.

你喜欢这样比较安静的音乐吗?
Nǐ xǐhuan zhèyàng bǐjiào ānjìng de yīnyuè ma?
너 보통 이런 조용한 음악 좋아하니?

看情况吧! 秋天的时候比较喜欢听这种类型的音乐。
Kàn qíngkuàng ba! Qiūtiān de shíhòu, bǐjiào xǐhuan tīng zhè zhǒng lèixíng de yīnyuè.
상황에 따라 달라. 가을엔 좀 이런 스타일의 음악 듣는 걸 좋아해.

我跟你差不多, 像秋天这样浪漫的天气听这种旋律的歌是挺有感觉的!
Wǒ gēn nǐ chàbùduō, xiàng qiūtiān zhèyàng làngmàn de tiānqì tīng zhè zhǒng xuánlǜ de gē shì tǐng yǒu gǎnjué de!
나도 너랑 비슷한데. 가을처럼 이렇게 낭만적인 계절에는 이런 멜로디의 노래가 확실히 느낌 있지.

🎯 틀린그림찾기



Quiz & Quiz

사진 속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11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이수경 님에게는 KL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LPGA TOUR 2015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베트남이 아껴둔 보물,

다낭



역사가 만들어낸 비밀의 낙원이
매일 더 가까워집니다

매일운항 서울(인천) ✈ 19:35 - 22:50 **베트남 다낭**
23:50 - 06:00+1